

투자자문업 보편화 위해 진입 장벽 낮춰

금융당국이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은행에도 자문업 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사람의 지지 없이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자문·자산 운용'의 길도 열어 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투자자문사, IB(Private Banking) 등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는 기관 또는 수신액 1~10억 이상인 고액자산가에만 집중돼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 보편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현재 자본시작액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이 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한다.

등록단위 신설·자본금 1억원으로 완화·은행 겸업 허용

장기적으로 법인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

현재 부동산자문만 하고 있는 은행에도 신설된 영업범위 내에서 자문업 견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자문은 할 수 있지만 기존 투자자문사가 주로 영위하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문은 제한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종업적인 위치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부자자문업(IFAs)제도도 도입된다.

IFA 제도의 핵심은 독립성 확보다.

이를 위해 자문의 대가는 고객으로부터 만 받아야 한다. 제조·판매회사로부터는 수수료, 수당뿐만 아니라 사무실·회비·연수와 같은 어떠한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자문료는 포트폴리오 내용에 관계 없이 종업적인 방식으로 부과해야 하고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에 국한된 자문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독립자문업자에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표시하

거나 홍보할 수 있게 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투자법에 독립자문업자가 독립성을 표시·홍보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문과 자산 운용을 맡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자본시작법은 자문·운용업자에게만 자문·일임업무를 허용한다. 이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가 시장의 지지 없이 자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자문·운용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서비스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성향분석 ▲투자자 포트폴리오 분석 ▲고객정보 보호 ▲해킹 방지 등의 보안성 ▲공개 테스트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고객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공개 테스트는 서비스·상품의 사전 테스트 공간인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통해 오는 7월 시행된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테스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투자일원·자문사의 등록요건 인력(일임사 2인·자문사 1인)을 로보어드바이저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산 투자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임형 투자상품은 온라인상에서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온라인 기입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일임형 투자상품의 온라인 기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자문서비스 이용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문업자, 판매업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원스톱(one-stop) 프로세스에 따라 소비자는 판매사를 통해 자문사를 선택하게 된다.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맞는 자문사를 연결해주면 자문사가 투자자에게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 뒤, 판매업자는 자문사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소비자의 계좌에 그대로 담아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문사와 판매사를 각각 방문해 금융상품 구매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인진수 기자

금융권 노·사 성과주의 도입 4월초 본격 협상

신입직원 초임 삭감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등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24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신입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30~40건의 2016년도 신별 임단협안건을 심의한 뒤 이를 사용자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을 다룰 임단협 관련 사용자협의회가 지난 4일 사측 안건을 전달해 이어 노측에서도 안건을 미련하면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에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신입직원 임금 등과에는 반대,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용자협의회가 성과 연봉제의 도입 이유로 드는 금융권 수익의 악화는 비용 문제보다 관리 금융에서 오는 부문이 크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입직원의 임금을 동결 또는 삽입하는 대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양장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평가 항목을 마련해 직무능력과 성과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업무 재배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개선이 없다고 여겨지면 퇴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일은 적게 하고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퇴직까지 시킬 수 있는 성과자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교섭대표기관 임원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는 금융공공 기관 성과주의 도입 방향에 충이는 기준을 금융권에 적용할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안건을 전달한 뒤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싼 본격적인 노사 간 협의는 4월초에 진행될 전망이다.

/인진수 기자

일반가구에 스마트함을 입히다

한샘 업계 최초 특수고해상도 카메라 등 담긴 단말기 내장 제품 출시



피부상태에 대한 종합 결과를 알려주는 '한샘 매직 미러'

판매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케아 역시 올해 상반기 스마트가구 출시를 계획 중이다. 이케아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선충전기능을 갖춘 스마트가구를 출시했다. 한국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에몬스가구도 스마트가구 출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에몬스가구는 LG유플러스와 협업해 만든 매직 미러를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일각에선 스마트가구의 경우 기존 제품에 비해 고가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대중적인 제품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인진수 기자

한국 인터넷 평균 속도 26.7Mbps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26.7Mbps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모바일 평균 속도는 전세계 5위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를 차지했다.

다국적 클리어드 컴퓨터 기업 아카마이이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5년 4분기 인터넷 평균 속도 26.7Mbps로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8분기 연속 전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기간 전세계 인터넷 평균 속도는 5.6Mbps로 전 분기 대비 8.6% 전년 동기 대비 23% 빨라졌다.

광대역 인터넷(4Mbps·10Mbps·15Mbps·25Mbps) 도입률의 경우 우리나라 97%, 81%, 63%, 37%로 모두 지난 분기에 이어 전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전세계적으로는 차세대 고화질 4K급 영상 전송이 가능한 15Mbps급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많이 높았다.

15Mbps급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19%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인진수 기자

소프트웨어 연구·선도학교 900개교 발표

미래창조과학부가 교육부가 2016년도 소프트웨어 연구·선도학교 900개교를 24일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는 초등학교 382개교, 중학교 214개교, 고등학교 86개교 등 총 682개교다.

소프트웨어 연구·선도학교는 2018년부터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심 운영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고등학교는 '정보' 관련 과목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야 한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학교별 평균 1000만원의 운영지원금과 함께 보조교재 개발 보금, 소프트웨어 담당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주 기자

파산 저축은행 채무관련자 회수 물품 경매

예금보험공사는 30일까지 7일간 파산자축은행이 채무관련자로부터 회수한 도자기 및 토기 등 예술품 394점을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를 통해 출품한다고 24일 밝혔다.

출품작품은 청자와 백자 및 토기 등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백자청화태극문제기, 분청사기철화당초문호, 청자상감모란문형합 등이다.

작품시작 및 내용은 서울옥션 홈페이지나 예보공매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은 전시장에서 직접 볼 수 있으며, 실제 구입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30일까지 입찰하면 된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